

수신 : 원장

참조 : 경영본부장, 센터소장, 동북아팀장

<중국경제동향보고 2001-34>

2001. 9. 21

KIEP 북경사무소

금년도 고정자산투자 전망 및 분석

1. 개요

□ 금년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11%에 달할 것이라고 중국 국가정보센터(國家信息中心) 경제예측부가 전망

- 금년 상반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5.1%에 달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임.
- 고정자산투자중 특히 부동산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(예상 증가율 20%), 민간부문의 고정자산투자도 예년에 비해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됨.

2. 금년도 고정자산투자 추세와 전망

□ 부동산투자 증가율은 2000년의 19.5%과 비슷한 20% 수준으로 예상되며, 부동산투자 총액은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15%에 이를 것임.

- 소득 증가에 따라 주택개조와 구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上海市 등 일부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용이 아닌 투자용 주택구입이 늘어나고 있음(상해시의 경우 20%가 투자용).
- 중국정부가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을 장려하고 있는 것도 부동산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.

□ 금년 상반기 국유경제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7.9%에 달하였지만 하반기에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.

- 대체적으로 국유기업의 투자가 상반기에 몰려있으며,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대외경제의 불안 등으로 신규 투자의 유인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임.

□ 금년도 집체기업의 투자 증가율은 작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농촌 집체기업 부진, 금융기관의 집체기업 대출 감소, 내부자금 동원 한계 등에 기인함.

- 작년 집체기업 투자 총액은 4,739억 원에 달해 전체 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.5%에 달했는데, 내부자금 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농촌 집체기업 투자액은 전체 집체기업 총 투자액의 약 80%를 차지하였음.

□ 금년도 개인투자 증가율은 10% 내외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바, 이는 최근 농민 수입 증가율 둔화에 따른 투자 부진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

- 2000년 都農 주민 개인투자 총액은 4,596억 원에 달해 전체 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.1%이며, 1999년의 경우 개인투자에서 농촌주민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6%이상에 달해 농촌 주민 수입 둔화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음.

3. 투자 활성화 방안 및 시사점

□ 국내 투자수요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함.

- 지금까지 민간부문의 투자가 기대만큼 증가하지 못한 이유는 ▲여전히 높은 국내시장의 진입장벽, ▲높은 세금 부담, ▲정부의 지나친 간섭, ▲불합리한 투융자 시스템 등임.

○ 민간부문의 정보, 인력, 경영능력 부족 등도 투자의 적극성을 감소시켰음.

-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 및 자본의 양성화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

한편, 민간기업 담당 민간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.

- 신속한 민간투자를 위한 허가제도의 간소화 및 개선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축소하고, 장기 저리 대출 등 금융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.

□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.

- 금년 상반기 집체기업 및 농촌 개인투자 증가율이 둔화된 배경은 정부 규제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임.
- 중국정부는 기업 창업자금 지원, 투자 효율성 제고, 인재 육성 투자 강화, BOT 방식 활용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함.
- 한편,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시도한 국채발행을 통한 정부부문 주도의 투자정책의 성과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민간투자 육성의 필요성으로 지적되고 있음. (***)

중국경제뉴스

1. 제6차 華商회의 개막

- 9월 17일 제6차 세계중국기업인대회가 강소성 남경시 국제전람센터에서 개막
- 李瑞環 중국정협주석은 개막사를 통해 중국의 건설과 발전에 대한 화교와 화인의 기여를 크게 평가함과 동시에 중국의 연내 WTO 가입과 세계경제의 부진으로 인하여 중국에 기회와 도전이 병존하는 시점에서 열린 동 대회가 해외 화인의 중국상황 포착과 협력기회 모색 및 서로간의 우의증진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언급함.
- 楊振寧 교수가 “21세기의 과학기술”이라는 연설을 통해 2030년-2040년에 이르러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세계의 앞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함.
(國際商報, 2001. 9. 18)

2. 경제 전문가 100명 대상 설문, GDP 성장을 7.6% 전망

- 중국경제경기감측센터가 100명의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

의하면 다수 전문가들이 금년도 경제운영 상황에 대하여 만족함과 동시에 연간 GDP 성장율이 7.6%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

- 경제운영의 질과 효율의 전체적인 향상, 재정수입과 기업이익의 지속적인 증가 및 주민소득의 안정 증가 등이 전문가들이 현 경제상황에 만족하는 주요 이유로 꼽힘.
- 그러나 전문가들은 남은 기간중의 경제발전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심각한 국제시장 상황,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직면하게 될 복잡한 경제형세, 고정자산 투자 둔화, 불합리한 경제구조 및 농민소득의 증가율 둔화로 인한 소비위축을 들었음.
- 전문가들이 중국경제가 이미 상대적으로 안정된 발전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7.0% 이상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
- 전문가들이 예측한 금년도 산업별 성장률은 농업 2.4%, 2차산업 9.0-9.9%, 3차산업 7.4%이며, 주요 거시지표의 전망치는 다음과 같음.
 - 고정자산투자 증가율: 12.8%, 사회소비재소매총액증가율: 10.4%, 수출증가율 : 6.6%, 수입증가율: 12.8%, 무역수지: 전년대비 21% 하락한 190억 달러, M₁증가율: 14.3%, 소비자물가: 1.4% (工商時報, 2001. 9. 11)

3. 인민은행, 부실대출 엄격히 조사

- 금년 상반기 인민은행은 4대은행중 부실대출잔액이 많고 비율이 높은 316개 2급 분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, 부실대출 615.3만 건을 심사하고 1,240명을 징계함.
- 316개 조사대상 분행은 ① 2000년 12월말현재 부실대출비율이 30%이상, 2000년 6월말대비 3% 포인트 상승 및 부실대출잔액이 1,000억 원을 초과한 2급 분행 ② 2000년 12월말 현재 부실대출 비율이 50% 초과, 잔액이 10억 원이상인 2급 분행 등 2가지 유형임.
- 금년 상반기 국유상업은행의 부실대출 비율은 연초대비 2.1% 포인트 하락 (經濟日報, 2001. 9. 18)